

대학 총학생회 SNS서 여학생 성희롱 '파문'

남학생들 단체 채팅방서 여성회원 성적 비하 여학생회 인터넷 공개... 네티즌·학생들 비난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을 향한 성추행, 성희롱 등을 폭로하는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 모 대학 총학생회 간부들이 여학생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메시지 대화 내용이 인터넷 상에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미투운동의 영향으로 여성들의 성의식이 고취되면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소한 신체접촉이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12일 온라인커뮤니티사이트, 페이스북 페이지 등에 따르면 광주 모 대학 총학생회 소속 남성 구성원들이

지난 달부터 최근까지 단체 채팅방에서 나뉘던 15일간의 대화내용이 공개됐다.

대화 내용에 따르면 사퇴한 한 학생회 여성의 실명을 거론하며 입을 다물게 해준다는 의미로 '내일 술먹이고 소주병을 XX(여성생식기)에 넣어버려라'나 여성 생식기를 색깔로 표현해 비하하는 성희롱적 대화가 쓰여있다.

또 전날밤 여자 임원들과 술을 먹은 후 다음날 2명의 여자임원을 두고 '실마 XX와 2대1. 윤간?'이라는 충격적인 내용과 '한명 더 있으니 2대2다며 스와핑이나'는 비상식적인

대화가 이어졌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8일 한 여성 총학생회 임원이 다른 남성 임원의 컴퓨터에 남아있던 대화내용을 발견, 사진촬영 후 인터넷에 올리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미투운동이 한창 전개되는 시점에 대학에서조차 이같은 일이 발생한것에 대해 이틀만에 수천여개의 댓글이 올라오는 등 네티즌과 학생들이 분노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잠재적 범죄자들이 아닌 그냥 범죄자다. 성희롱 아무렇지 않게 하는게 가정교육을 받지 못한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학생들도 '총학생회비 환불 안되냐'며 항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게시물을 올린 여성 임원은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심각한 명예훼손과 모욕적인 언행을 고스란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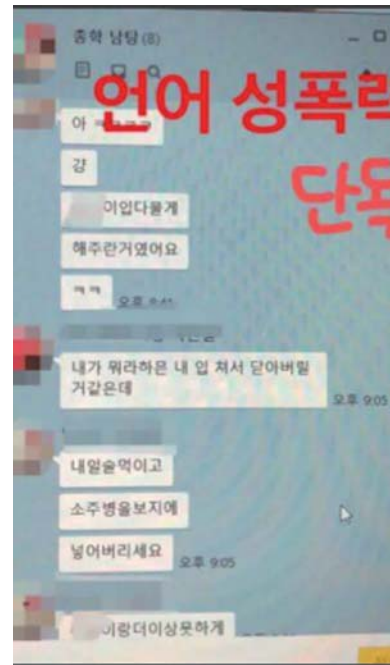
받아야 했다"며 "이 경악스러운 사건이 널리 퍼져 공론화돼 다시는 이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들이 총학생회 임원직을 사퇴하고 공식적인 사과문을 올려주길 바란다"며 "이전에 얼마나 수많은 욕설과 언어 성폭력이(대화로) 오갔을지 소름이 끼치고 무섭다. 보고도 방관하고 있던 나머지 총학 남자 임원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페이지 운영자는 총학생회 관련내용과 제보 등을 모두 삭제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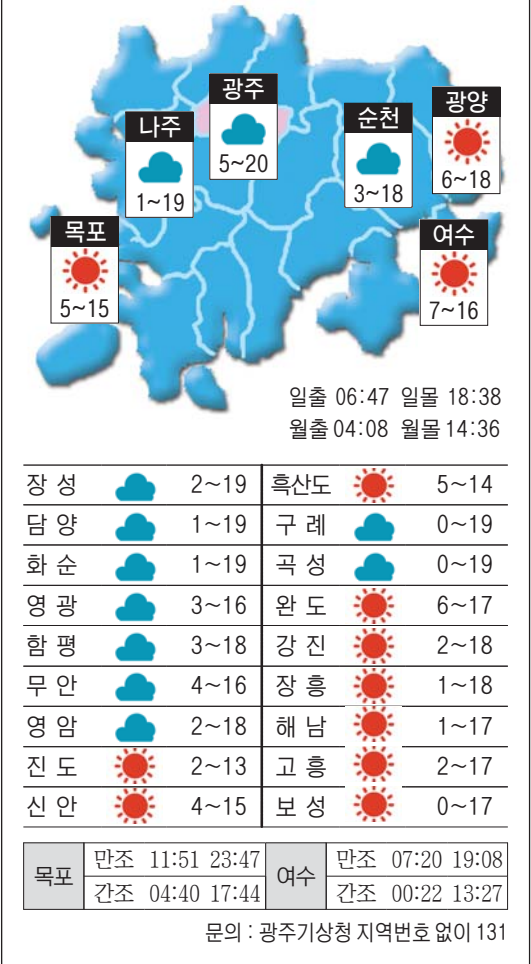
페이지 운영 관계자는 "현재 총학생회 임원들은 학교측과 논의 중이며 댓글에 올라오는 정보들은 사실과 다르다. 빠른시일내에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길용현 기자



광주 모 대학 총학생회 간부들이 여학생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메시지 대화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떠돌고 있다.

오늘의 날씨



광주 대학병원 장례식장 직원 횡령 의혹 경찰 수사

동부경찰, 제보 내용 사실 확인중

광주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 간부가 고객 임대료 수익원을 횡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2일 광주 동구 한 대학병원 직원 장례식장에서 직원이 약 3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다.

익명의 제보자는 최근 일부 언론사등에 "모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이 직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약 3억원에 달하는 고객들의 분향소 임대료를 횡령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보내왔다.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횡령 사실은 최근 국제정 특별세무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이다"며 "분향소 임대료 수납과정에서 수납차례에 걸쳐 현금만 받아 행기는 수법으로 사건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횡령 사실이 발각돼 병원측은 직원을 해고했으나 외부에 알려진 것을 우려해 이 사실을 덮으려 한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해당병원에 횡령사건이 있는지 파악중이며, 현재까지 정식수사 단계가 아니라 드러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길용현 기자



GMO 퇴출 촉구 퍼포먼스. 광주권역 아이쿱생협회원들이 12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촉구 청와대 청원 기자회견을 갖고 GMO완전표시제 도입과 학교급식에서 GMO퇴출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현직 경찰 잇따라 음주운전 적발

경찰관 기강해이...시민들 비난

광주지역 현직 경찰관들이 잇따라 음주운전에 적발돼 경찰의 복무기강해이가 도마위에 올랐다.

12일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는 지난 9일 새벽 0시20분쯤 광주시 북구 W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가던 중 주차

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수치인 0.074%였다. A경위는 사고 직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달미가 잡혔다.

앞서 지난 1일엔 남부경찰서 소속 B경위가 북구 용봉 IC 부근에서 면허취

소수치인 0.121%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가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올해 들어 경찰은 교통사고 줄이기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 활동 등 홍보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현직 경찰관들이 잇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내부 기강이 너무 해이해 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광주경찰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길용현 기자

가축분뇨 액상비료 하천 오염...농민·업자 고발

분뇨로 만든 액상 비료를 하천에 흐르도록 방치한 농민과 운반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형사고발 했다.

강진군은 12일 농민 김 모씨(69)와 축산분뇨 수집 및 운반자 이 모씨(56)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강진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부터 강진군 선전면 월평리 월산마을 김씨의 연근밭에 돼지분뇨로 만든 액상 비료 60t가량을 쏟아부었다.

군에 따르면 하천수를 이용해 자라를 양식하는 농민이 재산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며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강진=한태선 기자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살아 숨쉬는 고티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도
어린이집·유치원·한옥 내·외부·방바닥·전원주택·경로당·아파트·펜션·찜질방·카페·홈외벽·목재·양어장·물탱크·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솔잎, 편백나무, 약쭉,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재료를 엄선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저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중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드림코리아
DREAM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